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집과 특성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Clusters of Types of Mother-adolescent's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Trait Anger and Anger Coping Strategies

조유진(You Jin Cho)¹⁾

오지현(Ji Hyun Oh)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natural groupings of mother-adolescents in terms of the sub-factors of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The natural groupings were as follows; the placating type, the blaming type, the super-reasonable type, and the inattention typ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examined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it anger and anger coping strategies patterns by clusters of sub-factors of 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06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with the adolescent sample suggested the presence of four clusters ('placating-suppression', 'mixing up-confusion', 'authoritarian-hostility', 'consistent-repression'). Additionally, these four group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rait anger and anger coping strategies (anger-suppress, anger-out, anger-control).

Key Words : 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집(clusters of types of mother-adolescent's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특성분노(trait anger), 분노대처방식(anger coping strategies).

¹⁾ 인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성모마음정신과 심리치료사

Corresponding Author : Ji Hyun Oh,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E-mail : maple282@nate.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정서, 사회화 능력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환경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이며, 어머니와 아동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이후 자녀의 정서능력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Saarni, 1989;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즉,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며 행동을 조절하는 등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는 모-자녀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자녀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영유아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지만(Eisenberg, et al., 1998), 최근에는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Yap, Allen, Leve, & Katz, 2008;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청소년기는 신체 변화 및 심리적 동요 등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넓어진 대인관계와 사회를 경험하기에 가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고자 하려는 욕구가 많아지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시점이기도 하다(Juang, Lerner, Mckinnery, & Eye, 1999). 즉,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의 욕구와 성급한 자율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모-자녀 관계의 갈등은 빈번해지고(박희숙·하정희, 2007),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자기 통제력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나유미·

임연진, 2003; 박진경·도현심, 2001).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최근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녀의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적이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자녀의 공격성 및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Klim es et al., 2007; Stocker, Richmond, Rhoades, & Kiang, 2007), 효율적인 부모의 의사소통방식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비행행동을 보다 덜 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희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

요컨대, 의사소통 방식은 그들 간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표현을 통해 공통의 이해를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작용적 행동인데(Satir, Banmen, Gerber, & Gomori, 2000), 이러한 의사소통이 모-자녀관계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때, 청소년들은 욕구 불만 및 불만족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는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간에 의사소통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관련한 연구들(박희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 오지현, 2010a; 장영애·박정희, 2008)은 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을 높다-낮다 혹은 개방형-역기능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어서, 모-자녀의 의사소통 방식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Satir(1972)는 자아 존중감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을 유형화하였는데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아 존중감을 과장되게 보여주기 위한 대처방법으로 자신, 타인, 상황을 고려하는 수준에

따라 4개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여러 하위유형으로 세분화 한 것은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징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atir(1972)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유형(placating)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비난형(blaming)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또한 초이성형(super-reasonable)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면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과소평가하고 상황만을 중시하며, 산만형(irrelevant)은 주제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타인,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형은 개인마다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주로 드러나는 방식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상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 변인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즉,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네 가지 하위변인(회유, 비난, 초이성, 산만)의 조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군집을 탐색하여 패턴 중심으로 구분되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단일 변인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려 할 때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변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유한 영향이 가려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모-

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구체적인 특성들이 자녀의 정서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정서 중에서도 분노는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의 경우에 분노 충동이 오래 지속되며(이은순, 1998), 신체 변화 및 심리적 동요 등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분노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런 정서이지만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 사회적 부적응 경험을 동반하게 된다. 즉, 청소년의 비행, 학교 폭력, 가출 등의 대표적 부적응 문제 기저에는 통제 및 조절되지 못한 분노대처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서지영·최정윤, 2000; 신미영·김재환, 2001; 채유경, 2001).

이러한 청소년의 분노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고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 자주 경험되는 정서이기 때문에(이규미, 1999) 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전 시기보다 소원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애착정도에 따라 공격성과 분노 조절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김재엽·정운경, 2007; 이진솔, 2007; Diamond & Aspinwall, 2003; Kobak et al., 1993)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적절한 통제 및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높고,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나유미·임연진, 2003; 박진경·도현심, 2001).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해 최근 각기 다른 맥락에서 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분노대처방식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은 분노 억압과 분노 표현을

덜하며 분노를 잘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희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 모-자녀 간 역기능적 유형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특성 분노 영향력이 분노대처방식의 방향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밝혔다(오지현, 2010b).

상기의 연구들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분노에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구분해 보고자 하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군집에 따라서도 청소년의 특성 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군집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 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또한 모-자녀 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군’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연구문제 2>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에 따라 특성 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청소년의 분노 정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420)*

	구 분	N(%)
성별	남	240(57.1)
	여	180(42.9)
학년	중학교 2학년	157(37.4)
	중학교 3학년	148(35.2)
	고등학교 1학년	115(27.4)
가족 관계	모두 계신다	392(93.3)
	아버지만 계신다	14(3.3)
	어머니만 계신다	14(3.3)
	모두 안 계신다	-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8(6.7)
	고등학교졸업 이하	245(58.3)
	전문대 졸업	14(3.3)
	대학교 졸업 이상	119(28.3)
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28(16.1)
	40 ~ 50세 미만	298(74.9)
	50세 이상	36(9.0)
생활 정도	아주 못 산다.	2(.5)
	못 사는 편이다.	43(10.2)
	중간이다.	310(73.8)
	잘사는 편이다.	55(13.1)
	아주 잘 산다.	7(1.7)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	50(11.9)
	150~250만원	99(23.6)
	250~350만원	96(22.9)
	350~450만원	57(13.6)
	450~550만원	55(13.1)
	550~650만원	22(5.2)
	650~750만원	14(3.3)
	750~850만원	3(.7)
850만원 이상	1(.3)	

주.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학교 1학년 시기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이미리, 2009)와 분노 정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학교 폭력을 비롯한 공격적 일탈 문제 행동에 있어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비율이 높은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 조사 연구 결과들(문용린, 2008;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08)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지역의 중학교 2, 3학년과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의 남, 여학생 420명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중 모-자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자가정인 14명을 제외한 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본 연구에서는 심혜숙과 이상순(1998),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2004)에서 제작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척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고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재구성한 추미례와 김정희(2008)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미례와 김정희(2008)의 질문지를 청소년이 보고할 수 있게끔 수정한 후 5인의 청소년 관련 전공 전문가(박사 3인, 교수 2인)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두 명 이상이 문항의 적절성을 보통이하로 평정한 기존 질문지의 3번과 9번 문항을 삭제하였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22번 문항의 문장을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총 문항 수는 23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회유형 7 문항, 비난형 7 문항, 초이성형 5 문항, 산만형 6 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회유형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며(eg. 어머니는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주장하지 않는다), 비난형

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향을 나타낸다(eg.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편이다). 또한 초이성형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면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과소평가하고 상황만을 중시하며(eg. 어머니는 매우 이성적이 되며 무엇보다도 상황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다), 산만형은 주제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타인,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성향을 나타낸다(eg. 어머니는 나의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엉뚱하게 답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각 하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어머니가 그 유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주로 보이고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회유형 .74, 비난형 .85, 초이성형 .70, 산만형 .77로 나타났다.

2) 특성분노 및 분노대처방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 등(Spielberger, Johnson, Russel Crane, Jacobs, & Worden, 1985)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경구(1996), 이영식과 조주연(1999)이 한국 청소년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 STAXI-K)를 사용하였다. 이는 특성분노와 분노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상태, 특성분노는 각각 10문항, 분노 대처 방식은 하위유형 별 8문항씩 총 24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한다.

STAXI-K에서는 분노 경험 수준으로 상태분노, 특성분노를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얼마나 자주, 강하게 분노를 경험하는가를 반영하는 분노 경향성만을 알아보기로 하여 특성분노 질문지만을 활용하였다. 본 질문지에서의 분노 대처방식은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

제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분노 표출은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욕하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과 같이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정도를 측정하고, 분노 억제에는 화는 나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정도를 측정하며, 분노 통제에는 화가 난 상대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즉, 각 하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상황 시에 이러한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측정도구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특성분노는 .85, 분노억제 .79, 분노표출 .78, 분노통제 .79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학교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교사에게 질문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보내고 전화로 교사에게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묶이는지를 보여준다.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에 근거하여 하위집단들을 조합하여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변인 중심이 아닌 패턴중심으로 분류하고, 독특한 유형을 이루는 각 집단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이 청소년의 분노경험 및 분노 표현 대처방식에 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Hair와 Black (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분석 전에 주요 변인인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특성분노, 분노대처방식의 관계 정도를 파악하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변인들끼리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대처방식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정적상관

〈표 2〉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분노대처방식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특성분노	-							
2. 회유형	.15**	-						
3. 비난형	.28***	.11*	-					
4. 초이성형	.27***	.38***	.42***	-				
5. 산만형	.24***	.31***	.63***	.39***	-			
6. 분노억제	.51***	.13**	.23***	.24***	.18***	-		
7. 분노표출	.63***	.15**	.27***	.23***	.18***	.51***	-	
8. 분노통제	.05	.21***	.07	.20***	.13***	.32***	.03	-

* $p < .05$. ** $p < .01$. ***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하위요인과 분노대처방식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방식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비난형은 분노억제와 분노표출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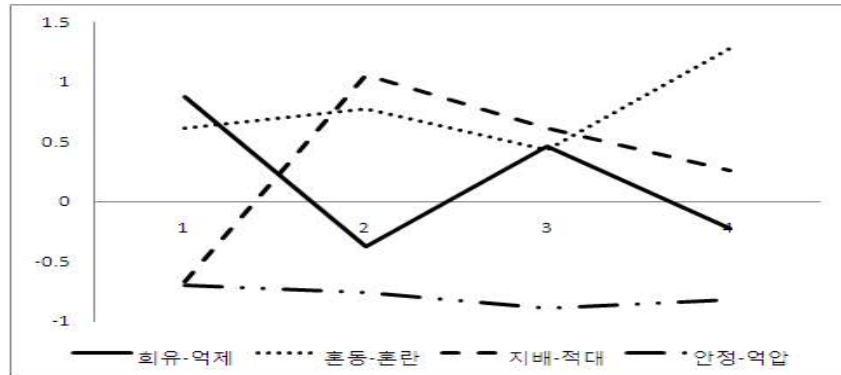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 유형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네 변인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s)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4개 군집이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도 가장 적절하였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은 99명, 군집 2는 96명, 군집 3은 68명, 군집 4는 143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집특성을 파악하여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하여 군집 변수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변인들이 조합된 형태를 검토하였다. 이를 고려해본 결과, 자녀가 지각한 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동시에 드러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군집 명을 ‘자녀가 지각한 모의 의사소통 방식-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형태로 명명하였다.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변인	군집1(N = 99) 회유-억제 집단	군집2(N = 96) 혼동-혼란 집단	군집3(N = 68) 지배-적대 집단	군집4(N = 143) 안정-억압 집단
회유형	.88	.61	-.67	-.70
비난형	-.38	.78	1.06	-.76
초이성형	.46	.43	.61	-.89
산만형	-.23	1.28	.26	-.82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M = 0$, $SD = 1$).



주. 1=회유형, 2=비난형, 3=초이성형, 4=산만형

〈그림 1〉 군집프로파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회유형과 초이성형이 평균보다 높고, 비난형과 산만형은 평균보다 낮다. 회유형은 자신을 낮추고 주로 타인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을 보이며 초이성형은 감정은 무시한 채 상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녀의 감정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자녀를 달래고 맞춰주는데 급급하여 모 자신의 감정은 억제하고 있는 집단으로 ‘회유-억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비난형이 모두 평균보다 높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역기능적인 특성들이 모두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자녀는 모의 비일관적인 태도에 어찌할 줄을 모를 것이며 모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정서적 특성을 나타냄으로 ‘혼동-혼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회유형이 평균보다 낮고, 비난형, 초이성형과 산만형은 평균보다 높는데 특히, 네 집단 중 비난형이 가장 높으

〈표 4〉 군집별 특성분노, 분노대처방식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종속 변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
	M(SD)	M(SD)	M(SD)	M(SD)	
특성분노	18.09c (5.11)	20.23b (5.36)	20.32a (5.74)	16.65d (5.27)	11.91***
분노억제	14.67a (3.97)	15.37a (3.86)	15.57a (4.47)	12.97b (4.19)	9.47***
분노표출	14.59b (3.83)	15.43a (3.97)	15.47a (4.31)	13.37c (3.83)	7.08***
분노통제	18.97a (4.36)	18.43a (4.40)	17.41b (4.68)	16.45c (4.51)	7.33***

*** $p < .001$.

주. 사후 검정은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였고, 같은 아래 첨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1 = 회유-억제집단, 2 = 혼동-혼란집단, 3 = 지배-적대집단, 4 = 안정-억압집단

며 회유형은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자녀가 모에 대해 강압적이고 독재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지배-적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모두 평균보다 낮다. 이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아서 자녀는 모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다 낮다고 해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모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잘 느끼지 않고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이는 억압적 대처(Weinberger, 1990)의 정서적 방어성 특징과 유사한 양상으로 판단되어 '안정-억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의 형태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에 따른 특성 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들이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양식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군집에 따라 특성분노($F = 11.91, ***p < .001$) 분노억제($F = 9.47, ***p < .001$), 분노표출($F = 7.08, ***p < .001$), 분노통제($F = 7.33, ***p < .001$)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유형에 따른 네 집단들이 특성분노와 분노대처방식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성분노 경향성은 군집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집2, 군집1, 군집4의 순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노억제에서는 군집3, 군집2, 군집1이 차이 없이 집단4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노표출의 정도는 군집3과 군집2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집1, 군집4 순서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노통제의 정도는 군집1과 군집2가 가장 높았고 군집3, 군집4 순서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차원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에 따라서 어떤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하위요인들 점수의 조합에 따라 집단을 분류했을 때 네 개의 독특한 집단(회유-억제, 혼동-혼란, 지배-적대, 안정-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군집의 결과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특성을 기초로 분류하여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탐색적 연구의 결과로서,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Satir 등(2000)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류된 군집에 따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특성을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유-억제'군은 회유형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초이성형의 특징을 많이 보이는 집단이다. 반면에 비난형과 산만형은 낮아 어머니가 자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며, 어머니의 자원은 감정보다는 지식이기에 상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자녀는 어머니와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

가 자신을 달래기 위해 설득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고, 어머니는 자신과 자녀의 감정보다는 갈등 상황 자체를 모면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은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는 ‘혼동-혼란’군으로 역기능적 하위 변인 모두 높은 집단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녀를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며 다그치기도 하며 또한 문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했다. 가 또 오히려 문제를 축소시키며 전환하려고 하는 등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녀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측이 불가능한 어머니의 태도에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어머니 또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지배-적대’군은 비난형이 가장 높으며, 초이성형, 산만형 순서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회유형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비위를 맞춰주는 일이 거의 없으며, 주로 자녀를 탓하고 무시하는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중시하다가도 즉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독재적이고 잔소리만 많이 하는 대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머니는 감정보다는 상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난형과 산만형이 둘다 높은 것으로 보아 타인의 입장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여 적대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안정-억압’군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모든 하위유형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다. 자녀는 어머니의 일관적인 태도에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모두 낮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다양한 가능

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자녀와 갈등 상황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감정이 촉발되기 마련인데(Dix, 1991), 이러한 감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하며 또한,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억압적 대처(Weinberger, 1990)의 정서적 방어성 특징과 유사하여, 이 집단의 어머니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 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탐색한 각 군집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네 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대처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독재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지배-적대’ 집단의 청소년들은 특성분노가 가장 높고,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억제, 분노표출 방식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일관적인 태도로 어머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동-혼란’ 집단은 특성분노가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방식 모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달래고 설득하려는 특성이 두드러진 ‘회유-억제’ 집단의 청소년들은 특성분노는 낮은 편이고 분노억제와 분노 통제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역기능적 하위요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안정-억압’ 집단은 네 집단 중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가장 낮으며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방식 모두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집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분노 정서는 각 집단마다 특징적인 모습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혼란-혼동’ 집단의 경우 특성분노가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통제 방식이 많이 나타났으며, ‘안정-억압’ 집단은 특성분노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통제방식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분노 통제력 또한 낮다는 보고(신미영·김재환, 200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특성 분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비난형과 산만형이 빈번하게 나타나더라도 회유형이 높을 경우 분노를 통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비난형과 산만형을 적게 보이더라도 회유형이 낮으면 분노를 통제하는 경향 또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분노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회유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분노 조절 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연구들(김광수, 2001; 신미영·김재환, 2001; 오지현, 2010b)에서 특성분노와 분노통제와의 상관과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분노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오지현, 2010b)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유형의 특성이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 중 하나이지만,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의사소통 양식을 자녀가 그대로 답습하나 아직 미성숙한 자녀들은 부모

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긍정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것(Satir et al., 2000)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회유형의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은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기분과 상황에 안절부절하여 비위를 맞춰주는 모습으로 깊이 있는 정서적 공감을 나누기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의 입장에서선 어머니가 자신을 회유하는 것을 교양이 있다고 지각하여(Satir et al., 2000), 어머니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중 하나로서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를 충족시키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회유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부모가 자신을 낮추고 맞춰줄 때 청소년 자녀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배려한다고 생각하여 분노가 촉발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조절하고자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둘째, ‘안정-억압집단’ 이 보이는 청소년 자녀의 분노대처방식의 특징은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즉, 네 집단 중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요인이 모두 낮은 ‘안정-억압’ 집단은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가장 낮으며 분노억제, 분노표출 방식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관적인 어머니의 태도에 청소년 자녀가 안정감을 느낌으로써 분노 경향성이 낮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분노대처방식 또한 적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부정적 분노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희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 오지현b, 2010)를 고려해 볼 때 어머니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모든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

는 아니었는데 즉, 네 집단 중에서 분노 통제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 경우 분노를 잘 통제한다는 보고(박희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적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곧 반대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일관적인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 자녀가 느끼기엔 안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지만, 모-자녀 의사소통의 이면을 추측해 본다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정서든지 간에 정서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배제된 관계일 수 있겠고, 또한 부모가 자녀의 상황에 무관심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자녀가 정서적인 능력을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할 것이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 높고(고정자, 2005),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자녀가 일탈행동을 적게 보인다는(나유미·임연진, 2003) 연구결과들이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회유형의 특성과 연관 지어 볼 때, 다른 유형들과 함께 회유형 또한 가장 낮은 집단이기에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요컨대, 본 연구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조합되는 형태를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들 간에 특징적인 관계패턴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발견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패턴과 청소년 자녀의 분노 정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의 특성 분노 영향력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특성에 따라 분노표현 방

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견들은 추후 관련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어야 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함의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군집분석은 표본의 특성에 민감한 탐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추후 확인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군집이 타당한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로 나타난 네 개의 군집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측면이 군집분석의 방법론이 지니는 제한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즉, 군집분석 자체가 자연발생적인 집단을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된 군집들이 기존 이론이나 논리적인 추론 방향과 항상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는데, 어머니와 자녀 간 지각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어머니가 보고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함께 측정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재검증 작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방법은 주관성을 배제하는데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보고나 전문가의 관찰 등을 통한 다양한 측정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노감정이 부적응적인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으며 임상군 집단과 비임

상군 집단은 특성분노와 분노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보고를 고려해 볼 때(서지영, 최정운, 2000) 연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김광수(2003). 청소년의 분노 수준, 분노 대처방식과 학교 생활 적응. **교육심리학연구**, 17(3), 393-410.
- 김영애(2004). **인간관계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사티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서울: 김영애 가족 치료 연구소.
- 김재엽 · 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나유미 · 임연진(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문용린(2008). 학교 폭력 시대 및 대처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 안전대책 세미나 자료집 : 학교 폭력 10대 트렌드**, 3-12.
- 박진경 ·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monitoring) 및 감독 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박휘숙 · 한정희(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89-110.
- 서지영 · 최정운(2000).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특성분노와 분노반응양식(포스터 발표 초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46-247.
- 신미영 · 김재환(2001). 내원 청소년의 분노 표현 양식에 따른 MMPI 반응 특징.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0(2), 299-309.
- 심혜숙 · 이상순(1998). 심리경향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분석 -Jung과 Satir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유형학회지**, 5(1), 1-24.
- 양윤일(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분노 표현방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규미(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순(1998). **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 오지현(2010a).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 -정서 · 행동 문제를 보이는 내담아동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7(1), 33-48.
- 오지현(2010b).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표현방식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4), 53-68.
- 이미리(2009).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달과 자아 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맥락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2), 127- 143.
- 이영식 · 조주연(1999).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의 표준화 연구. **한국신경의학회지**, 38(4), 794-804.
- 이장호 · 한덕웅 · 전검구 · Spielberg(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2(1).
- 이진술(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 ·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2), 69-85.
- 전검구(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2). **재활심리연구**, 3(1), 53-69.
- 추미례 · 김정희(2008). 대학생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특성 분노, 분노 사고 및 분노 표현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 20(4), 1023-1039.
-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2008). **2007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 채유경(2001). 청소년 분노 표현 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2008).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User's Guide**.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 Berkowitz, L. (1990). On the in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 A cognitive-neo 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 494-503.
- Diamond, L. M., & Aspinwall, L. G. (2003). Emotion 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 an integrative perspective emphasizing self- regulation, positive affect, and dyadic process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125-156.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25.
- Deffenbacher, J. L., Demm, P. M., & Brandon, A. D. (1986). High general anger : Correlates and treatment.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4, 481-489.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2001). The core and correlates of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120-124.
- Gentry, W. D. (1982). Habitual anger-coping styles : 1. Effect on mean blood pressure and risk for essential hypertension. *Psychosomatic Medicine*, 44, 195-202.
- Gross, J. J., & John, O. P. (1998). Mapping the domain of expressivity : Multimethod evidence for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71-191.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I. G. Grim & P. R. Ya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uang, L. P., Lerner, J. V., Mckinnery, J. P., & Eye, A. (1999). The goodness of fit in autonomy timetable expectations between Asian-American lat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023-1048.
- Klimes, D. B., Brand, A. E., Zahn-Waxler, C., Usher, B., Hastings, P. D., Kendziora, K., & Garside, R. B. (2007).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 Differences in sex, age and problem status. *Social Development*, 16, 326-342.
- Kobak, R., Cole, H., Fleming, W., Ferenz-Gillies, R.,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Saarni, C. (1989). Emotional intellig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 become integrated. In R. A. Tompson (E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p. 115-182)*.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tir, V. (1972). *People-making* :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atir, V., Banmen, J., Gerber, J., & Gomori, M. (2000). **사티어 모델 :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한국 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Spielberger, C. D. (1980). *Preliminary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scale (STAS)*. Tampa, FL : University of South Florida, Human Resources Institute.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e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 The state-trait anger.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pp. 161-190). Hillsdale, NJ : Erlbaum.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e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pp. 5-30). New York : Hemisphere.
- Stocker, C. M., Richmond, M. K., Rhoades, G. K., & Kiang, L. (2007), Family emotional process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6, 310-325.
- Weinberger, D. A. (1990). The construct validity of repressive coping style. In J. L., Singer (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 Implication of personality theory, psychopathology, and health* (p. 337-386).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ap, M., Allen, N. B., Leve, C., & Katz, L. F. (2008).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Socialization of Adolescent Affect : The Moderating Role of Adolescent Tempera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688-703.

2011년 4월 30일 투고, 2011년 7월 18일 수정
2011년 7월 28일 채택